

투명한 운영으로 지회와 회원발전 도모...



회원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윤한성 지회장

지난 3월 16일 본회 전남도지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신임 지회장에 윤한성 지회장이 선출되었다. 나주시 봉황면에서 5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윤한성 지회장은 그동안 지회를 이끌어오던 김종선 전 지회장의 뒤를 이어 육계분야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산란계와 육계 균형된 발전을

전남지역에는 산란계 150여 농가, 육계 400여 농가가 전업으로 양계를 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위치한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양계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정기총회가 개최된 후 체제정비를 통해 지회를 꾸러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인 전남지회는 그동안 채란인들 위주로 이끌어 오던 지회체제를 육계인들을 이사진에 대거 포진하면서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남지회는 광주축협(조합장 전준화) 영산포지소 3층에 마련되어 있다. 나주지역이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조합의 특별한 배려로 지난 2002년부터 광주에서 나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남도지회는 나주지부(지부장 김복남)와 무안지부(지부장 권동혁) 등 2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발맞추어 지역적으로 지부설립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정기총회 이후 윤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자주 사무실에 모여 지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 지역 회원들은 기자가 방문한 지난 8일에도 시에서 실시하는 닭고기 먹는날인 '화이트데이' 행사 참석에 앞서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당면현안 및 지회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자조금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통해 의무자조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하였으며, 홍보방향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완전식품 계란에 대한 완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이 참여하는 지회로

윤지회장은 당면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회원들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를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을 하되 특히, 난가나 이사회 등의 협의내용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으로 지회와 회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육계는 지난해부터 나주지역에 육계모임이 결성되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선임된 정중식 육계분과위원장(부지회장)의 노력을 통해 지회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지역도 계열주체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육계인들 사이에 불만이 커져가고 있으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열업체와 계약사육농가들이 동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해 가기로 했다.

채란업의 경우 전남지역은 생산되는 계란의 일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판매되는 관계로 유통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상인들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채란분과위원장(부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복남 위원장을 비롯해 난가위원들이 계란의



회원들은 지회 사무실을 자주 찾아 회원 권익 및 지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서울경기 지역의 난가를 충분히 참작하여 난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윤지회장은 10여 농가밖에 안되는 종계인들도 참여를 적극 독려해 균형적인 지회운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회원들의 이익 대변

그동안 전남지역은 경기도 지역 등에서 계분이 유입되면서 계분처리 문제로 어려움이 컸지만 지회의 노력으로 나주시와 도에서 퇴비지원사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양질의 퇴비를 도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문제를 해결해 온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윤지회장을 위시하여 난좌 등 공동구매사업 등을 통해서 지회 사업 확대와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정보파악과 소독, 방역 활동에도 도·시는 물론 지역 축협과의 연계를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상무를 두어 지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회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해 회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갈 뜻을 밝혔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



전남지회 사무실은 전남 나주시 나주축협 영산포지소 3층에 위치해 있다.